

◀기쁜 우리 날들▶ “거짓말은 안한다”



(『장 크레티앙』 1963년 29세에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40년 동안 정치가로 지내며 93년 총리가 된 이래 세 번이나 총리에 임명 되었다)

캐나다 총리 장 크레티앙은 가난한 집안의 19형제 가운데 18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을 수 없고,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비뚤어져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그런 그가 신체장애를 딛고 1993년 총리가 된 이래 세 번이나 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신체장애는 때론 정치만화가의 풍자 대상이 되었고,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져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유세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그러자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는 1963년 29살로 하원에 당선된 뒤 40여 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자신의 신체장애와 그로인한 고통을 솔직히 시인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직함과 솔직함이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이겨낸 힘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지 ▶

풍 풍

맹물에 불러 행주로 박박 닦으면 그만이던 시절에 ‘풍풍’이 나와 그릇의 기름때를 뽕뽕뽕뽕 제거시켜주었습니다. 이후 ‘미원’ 처럼 ‘풍풍’은 식기세척제라는 일반명사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부터인지 가루비누 ‘하이타이’와 함께 ‘풍풍’은 이사 간 집을 방문할 때 성냥과 양초 대신 자연스럽게 들고 가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회사에서 나온 ‘트리오’라는 세제도 있어 ‘풍풍’과 경쟁제품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이알 비누, 럭키차약, 하이타이, 풍풍...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친근하게 지내온 정겨운 이름들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9권 1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3월 18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언더라인

박목월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흐르는 달빛에 산천은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족으로 장정된
모서리가 헐어 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뵈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 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말씀따라 행하기▶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만 하지 말고
당당히 요구하라

◀인품따라 행하기▶

사랑은
결코 이유를 묻지 않으며
아낌없이 주고도 후회
모자라지는 않나 걱정합니다

주일 예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Hymn	23장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9(시편 23)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송 Hymn	135장	다같이
기도 Pray		이규임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23:13-25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대대로 비운해진 빌라도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그때 그 무리들이	다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학생부 교사	다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우리교회가 좋은 시기에 좋은 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제일 간절하기는 저에게 보아스 같은 저의 반쪽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생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전건축 헌금 드린 교우의 헌금봉투에서-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1,334	총액:\$310,947
---------------------	--------------

◆3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응답송	안내
4	백제성	안수집사	본당:권사
11	양경배	안수집사	현관(1)김교섭.안정실
18	이규임	봉사부	현관(2)이광희.박일영
25	이근평	학생부교사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윤주야 장유진

◆3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인도자, 구역장모임(28)
11	권사기도회(14).6:30pm
18	야외예배 선교회별 식사
25	이삭줍기주일 안수집사기도회(28) 6:30pm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 교우소식
*김경수 성도(조은희 집사 남편). 한국에서 병환으로 입원 중.기도부탁드립니다
- 오늘 예배는 학교 측 사정으로 Gym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 연합구역식사친교
*예배 후 연합구역별로 "Farewell Summer Lunch"를 가집니다.
지나가는 여름과 다가 온 가을 사이의 경계를 맛보겠습니다. 가을빛 물이 들고 있는 Park에서..
- 수요예배 <신명기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30
*한 주 전에는 더워 Hall 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지난 수요일은 Hall 안의 따듯함이 참 좋았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 새벽기도회 <일시> 매주 금요일 새벽 5:50분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출로 일어나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중에서)



◀착한 시인들▶ 별

이동순

새벽녘
마당에 오줌 누러 나갔더니
개가 흙바닥에 엎드려 꼬리만 흔들니다
비라도 한줄기 지나갔는지
개밥그릇엔 물이 조금 고여 있습니다
그 고인 물 위에
초롱초롱한 별 하나가 비칩니다
하늘을 보니
나처럼 새벽잠 깬 별 하나가
빈 개밥그릇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길고 덥던 여름을 보내려는 듯
거친 비가 많이 온 밤들이었습니다.
모처럼의 비에 햇빛도 가을별로 바뀌었습니다.
문 밖에 벗어둔 샌달에 빗물이 고였기에 발가락에 끼고 들어올려 물을 털 후 신으니 차가움이 맑은 감촉으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우리를 위해 밤새 기다려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친구, 소식 기다린 부모님 그리고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